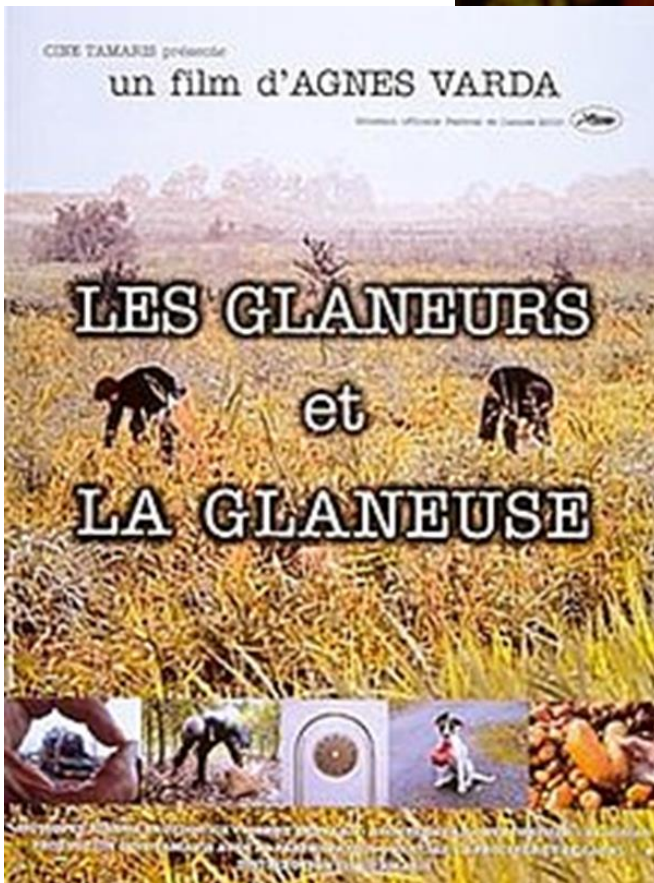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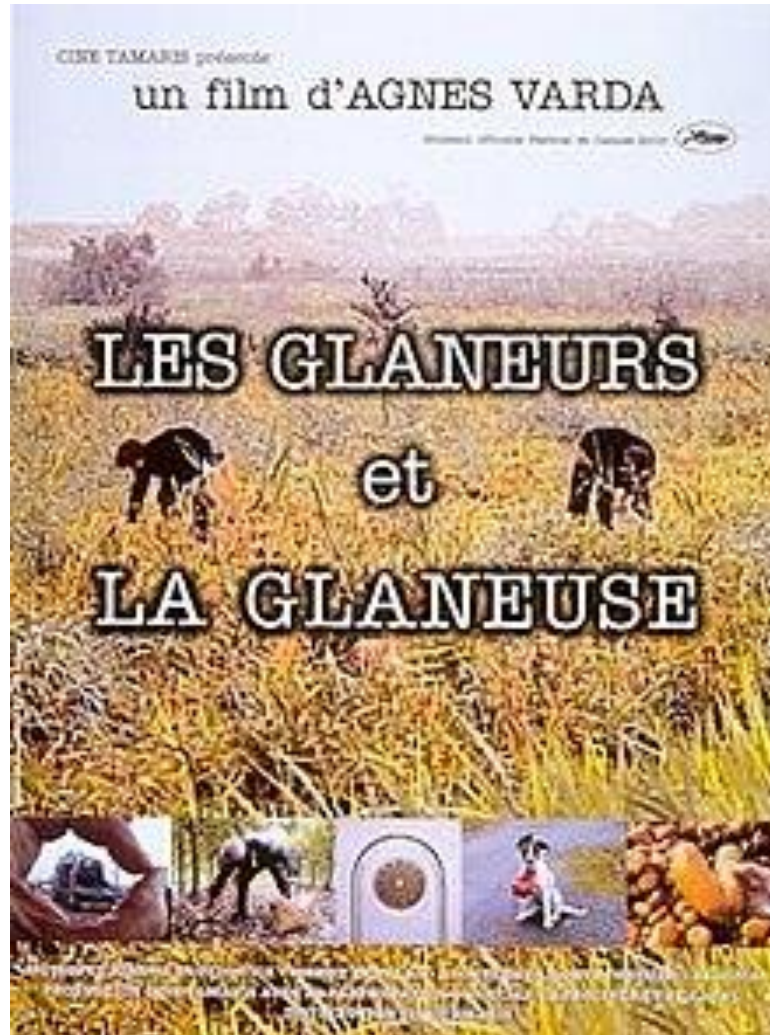


<프랑스 영화와 현대 철학>



<이삭 줍는 사람들과 이삭 줍는 여인> 현재 진행형 누벨바그, 아녜스 바르다



최고의 철학 디지털 다큐

-Anti-philosophy of subject-

- 2000 Cannes Film Festival ("Official Selection 2000")
- 2014 Sight and Sound poll, <The Gleaners and I> **the eighth best documentary film of all time**
- No. 99 on BBC's list of the **100 greatest films of the 21st century**

비디오 카메라 촬영 이삭 줍기, 잉여물 줍기

- 1929년 Dziga Vertov의 걸작, <카메라를 든 사나이 Man with a Movie Camera> 오마주
- 반소비주의, 반권위주의, 픽션/논픽션의 하이브리드화
- 아나키스트 윤리의 일상 실천, 주는 사람 줍는 사람의 동기화
- 성경: "추수 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게 하라" 27:45
- 오늘날 또 다른 이삭 줍기: 기부-포트래치
- 영화 초기 루미에르 시대로 회귀하는 영화인의 정신(인트로 감상)

아네스 바르다의 영화, -내 안의 '남other' 을 일깨우다-

- 이웃의 낯섬. 낯섬의 친밀함, 이방인,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한 관심이 영화 제작
- <이삭줍는 사람들과 이삭 줍는 여인 Les Glaneurs et la Glaneuse> (2000)
- 장 라 플랑슈, <안티 주체 철학> 철학자, le philosophe de 'l'anti-philosophie du sujet' : 나의 기원은 늘 다른 사람에게 있다. 23;30
- 빅토르 스갈랭 : 타인이 필요하다. 타인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는데, 그 감각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 바르다 : 나는 내가 모르는 짐승. 30;30

내 안의 남 농무아mon-moi

- 非我로서의 'non-moi'(내가 아닌 나)는 19세기 신조어로서 '나와 구별되는 것', '주체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독일어 'nicht-ich'의 번역어로 새롭게 탄생
- 이후 'non'과 'moi'의 합성어로 자아(moi)의 대립어로 인식되어 옴.

<현대적 삶의 화가>, 보들레르

하늘이 새의 영역이고, 물이 물고기의 영역이듯, 그의 열정, 그의 직무는 군중과 열음택
의 영역은 군중이다. 그의 열정, 그의 직무는 군중과 열음택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완벽한 만보자에게 있어서, 다수 속에, 물결침 속에,
정적 관찰자에게 있어서, 순간적인 것과 무한한 것 속에 거처를
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자기 집밖에 머무는 것,
그럼에도 어디에서나 자기 집처럼 느끼는 것, 그
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 한 가운데 머무는 것,
세상에 문하는 것, 이 모두가 말로서는 어설프게
규할 수 밖에 없는, 독자적이고 정열적이고 공평
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갖는 몇몇 최소한의 즐거움
이다

지나가는 여인에게, —보들레에르1860

거리는 내 주위에서 귀가 멍멍하게 아우성치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상복, 장중한 고통에 싸여, 후리후리하고 날씬한
여인이 지나갔다. 화사한 한쪽 손으로
꽃무늬 주름 장식 치맛자락을 살풋 들어 흔들며.

날렵하고 의젓하게, 조각 같은 그 다리로.
나는 마셨다, 얼빠진 사람처럼 경련하며.
태풍이 싹트는 창백한 하늘, 그녀의 눈에서.
얼을 빼는 감미로움과 애를 태우는 쾌락을.

한 줄기 번갯불..... 그리고는 어둠! 그 눈길로 홀연
나를 되살렸던, 사라져 간 미인이여.
영원에서밖에는 그대를 다시 못보련가?

아득히 먼, 저세상에서! 너무 늦으리! 아마도 '영원히' 보지 못하리!
그대 사라진 곳 내 모르고, 내 가는 곳 그대 알지 못하기에.
오 내가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그대. 오 그것을 알고 있던 그대여!

- '너를 스치는 것은 만인을 스치는 것', '순간에 와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Pais Je t'aime

<현대적 삶의 화가>, 보들레르

매 순간 그를 늘 유동적이고 순간적인 삶 자체보다 더욱 생생한 이마쥬로 옮겨 드러내 주는 것은, 한 없이 '내가 아닌 나'를 갈구하는 나이이다. 어느 날 그의 강렬한 시선과 암시적인 몸짓으로 상기된 대화의 자리에서 G씨는 말했다. "모든 인간, 모든 능력을 앗아가 버릴 만큼 너무도 진정한 어떤 슬픔에 짓눌리지 않는 모든 인간, 그리고 군중 속에서 권태스러워 하는 모든 인간은 멍청이! 멍청이이다! 나는 그를 경멸한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보들레르 -구조주의적 사유-

프리드리히 헤겔과 마르크스는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통해 자아를 조망하고 노동을 실천하면서 타자와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말은 노동에 의한 사회관계 이전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

마르크스, 프로이트, 보들레르 -구조주의적 사유-

마르크스가 자아를 개체를 떠나 계급적으로 본 것,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통해 자아를 본 것은, 자아의 인식불가능성을 주장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말처럼 인간이 자의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동일선 상에 있음

마르크스, 프로이트, 보들레르

-구조주의적 사유-

동시대의 시인 샤를르 보들레르 또한 이러한 자아와 비아를 주체와 객체의 대립으로 보는 자아 중심적 사유 태도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내가 아닌 나(non-moi)'로서의 비아를 자아 속에서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자아 아닌 자아'로 표현. 이 자아는 하나의 자아이자 곧 다수이며, 비아는 다수와 맺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자아.

탈자아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에로티즘의 자세-

- 불합리한 주장과 정신의 예속을 낳는 자기중심적 사유 태도에서 벗어나, '내가 아닌 존재 (non-moi)'를 추구하는 예술가와 철학자들에 공통된 정신적 노력.
-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르코 복음서 8장 3절)
- 내 작업에 내 가슴과 영혼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잃었다.(빈센트)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공통점

- 자기중심주의 혹은 휴머니즘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자들의 관계를 추구하는 구조주의 사유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
-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철학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프랑스의 비평가 데리다가 제창한 비평이론인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혹은 그 이후의 사유의 핵심이기도 한 탈자아적 사유의 기원은 샤를르 보들레르와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에서 비롯
- 이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자아 상실에 관계되는 문제. 이들에게 자기완성은 '내가 아닌 존재 non-moi'로서의 완성을 뜻하며, 아름다움은 마치 이 존재의 성격과도 같은 것

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공통점

- 아름다움은 관조나 단순한 느낌의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상실을 요구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deconstructivism) 사유의 공통점으
로서 탈자아의 사유는 자기 시대와 공
간에 예속된 사유의 틀을 벗어나 지금
· 여기 · 나를 벗어난 영역의 문제를
문제삼으려 하는 태도

아름다움의 정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뜻하는 라틴어 'bellus',
아름다움과 선함을 동시에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칼로스(καλός)로부터 유래

-아름다움은 우선적으로 자기 마음 상실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자기완성의 태도로서 '내가 아닌 존재 non-moi'의 성격과 같다. 그러기에 아름다움은 "신비로움과 비규칙성, 다시 말해 예기치 못한 것, 뜻밖의 것, 놀라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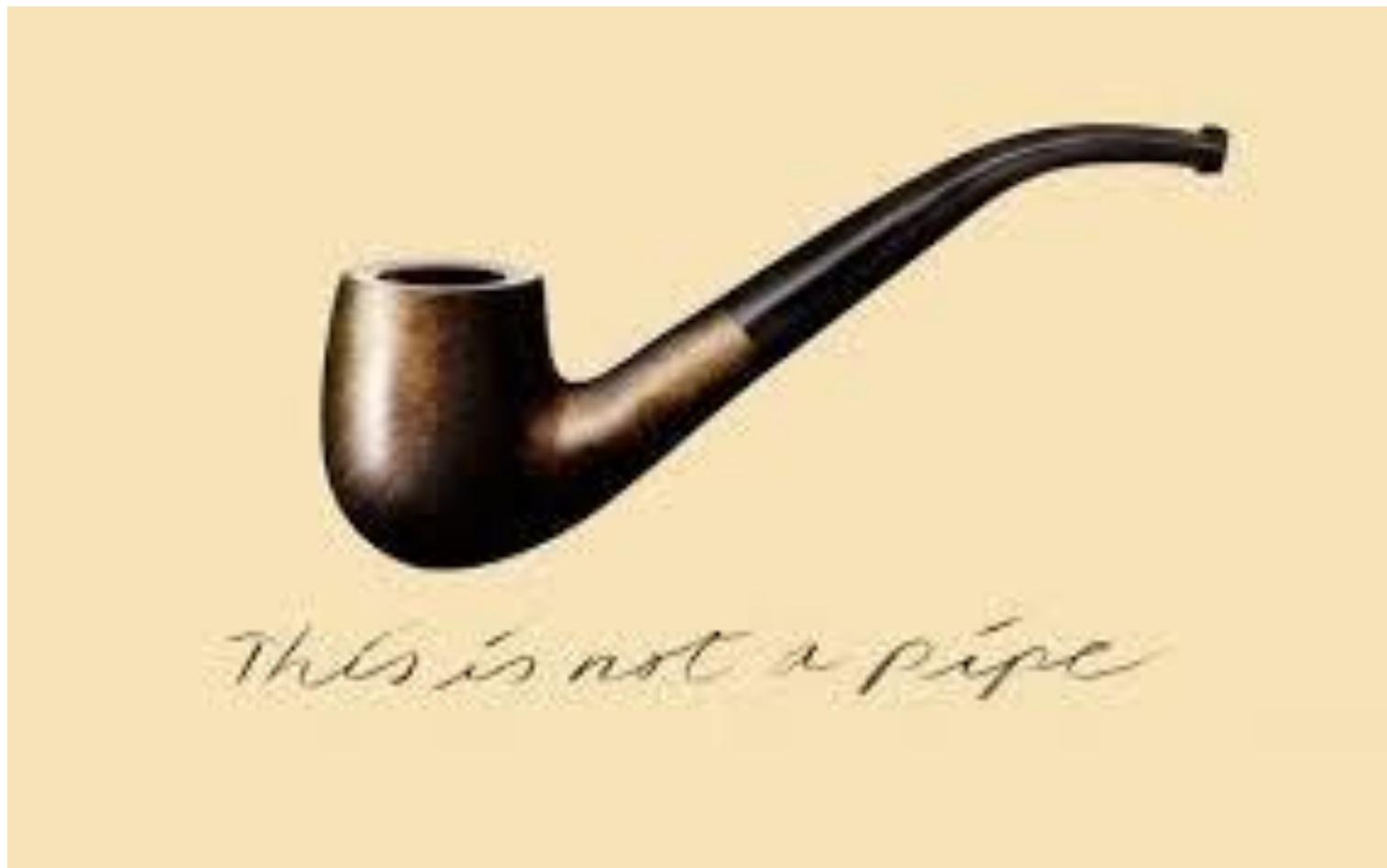
아름다움의 기능

진정한 예술이란 아름다움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화 된 아름다움이 지니는 일종의 관습화된 권위 속에 내포된 오류를 지적하는 것(조르쥬 바타유).

바타유는 개별적 아름다움을 보편적 아름다움의 토대로 삼고 있어 아름다움의 보편적 아름다움 속에 내포된 개별적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예술가들의 성스러운 심적 투쟁을 높이 사고 있다. 아름다움을 진정한 현대적 시인의 예술과 종교의 공통 토대로 작용.

바타유처럼 위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고 라캉(Jacques Lacan)은 욕망의 정지, 욕망의 약화, 욕망의 해제를 아름다움의 기능(L'éthique de la psychanalyse 279)으로 상정.

초현실주의 화가 René Magritte <이미지의 배반 La Trahison des images>



이 그림에 파이프는 몇 개 인가?
하나, 둘, 셋..... ∞

아멜리가 꿈꾼 삶





바타유, <에로티즘>

Bernini, Ecstasy of Saint Teresa(1647~1652)



테레사 수녀Thérèse d'Avila(1515-1582)

이미 나는 나를 벗어나
살고 있네.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므로.

